

## ★ 당부의 말씀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 임용 2차 대비 수업 실연 이벤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제 소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2018학년도 경기지역 합격자로 현재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합격 이후 현재까지 저는 매년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예비교사분들께 임용 2차 피드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처음으로 비대면 피드백을 진행하게 되어 미숙한 부분이 있겠지만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임용시험 1차의 경우에는 답 자체는 공개되지 않지만, 수학적으로 명확한 답과 풀이가 존재합니다. 반면, 임용시험 2차의 경우에는 채점항목, 루브릭 등이 전혀 공개되지 않기에 합격자들이 나름의 합격 전략을 제안하고 있지만 이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가 드리는 수업 실연 피드백 또한 지극히 주관적인 의견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 절대 제 피드백에 흔들리지 마시고 선생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주관과 방향을 잃지 않고 나아가시면 됩니다.

교사마다 수학 수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매우 다릅니다. 어떤 교사는 수학적으로 엄밀성을 강조한 수업을 좋은 수학 수업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어떤 교사는 수학적으로 엄밀성이 부족하더라도 학생들이 참여하고 얘기하는 수업이 좋은 수학 수업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후자의 입장으로, 수학 수업에서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의사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사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제 관점이 어느 정도 피드백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염두하고 피드백을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아무쪼록 선생님께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한 부분	보완이 필요한 부분
도 입	출석 체크(학생 인원수, 모둠 배치), 수업 형태(블록 타임), 준비물(교과서, 테블릿) 등 수업 안내가 차분히 이뤄져서 좋았음	
수 업 실 연 1		생소한 조건의 동기유발이라서 그런지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던 것 같음(6분 정도 소요). 수업 초반 동기를 유발하기 위한 부분인 점을 감안하면, 오개념을 수정하는 과정을 보다 가볍게 다룰 필요가 있음. 선생님의 실연을 보면 가볍게 수업을 시작한 부분이라기 보다는 본격적으로 평균을 지도하는 과정으로 보임.
		* 긴장하여 수업 실연의 첫 부분을 망치게 되면 도미노처럼 수업 실연의 뒷부분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음. 따라서 첫 부분의 수업실연 조건은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담백하고 시연하여 여유를 갖는 것도 멘탈 관리에 좋다고 생각함.
수 업 실 연 2	모둠활동을 명확하게 안내해줘서 좋았음(구체적인 시간, 해야 할 것 등). 앞으로 모둠활동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하는 부분을 루틴으로 만들어 준비하면 좋겠음.	교사가 발표의 순서를 정하는 부분이 잘 드러나지 않음. 출제자의 의도는 교사가 순회지도를 통해 모둠의 풀이를 점검하고 적합한 발표순서를 정하는 것이었음.
	순회 지도에서 다양한 상황(테블릿이 고장난 모둠, 떠드는 모둠, 수학 개념을 모르는 모둠)을 지도하는 장면이 드러나서 좋았음. 여유가 된다면 수학을 잘해서 다 풀고 놀고 있는 모둠을 위해 도전적 과제를 소개하는 장면도 순회 지도에 넣어볼 수 있음.	15분 33초 : 교사가 활동을 구성한 의도에 대하여 지혁이가 (모범적인) 답변을 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짐. 차라리 교사가 ~~의도로 이런 수업을 준비했다고 하는 편이 나아 보임.
		학생들이 모두 적극적으로 발표하는 수업은 현장에서 찾기 힘들
수 업 실 연 3	수업 중간에 학생들의 격려하는 것이 좋았음. 적절한 형성평가와 학생의 오개념을 미리 예상하여 실연한 것이 돋보임.	모든 모둠이 너무 똑똑함. 의도적으로 한 모둠 정도는 발표를 어려워하는 장면을 넣어보는 것을 추천함. (물론 시간이 허락된다면) 4모둠이 손을 들었어요. 5모둠이 틀렸다고 했습니다. 2모둠이 중앙값을 구한다고 했어요.
총 평	- 전반적으로 수업을 매끄럽게 이끌어가고 수업 중 학생들의 상태를 살피거나 격려하는 장면이 보기 좋았음. - 판서 또한 체계적이고 깔끔해서 보기 좋았음. - 수업 실연에서 조건별로 시간 배분이 아쉬움. 동기유발이 길고 형성평가가 짧았음. 6분/13분/6분에서 적어도 조건의 가중을 고려해도 5분/ 10분 / 10분으로 수정되는 것을 추천. - 학생들이 대체로 너무 똑똑하고 자발적임. 상위권 학생들을 이끌어 가는 교사의 역량을 충분히 확인되나, 배움에서 이탈하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의 역량이 드러나지 않음(아래에서 계속).	

어떤 수업 상황을 가정하고 시연하는가?

선생님의 수업에서는 수업을 열심히 따라오는 학생들은 잘 이끌고 지도하는 역량은 확인되지만, 배움에서 이탈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역량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의 수업 실연 영상에서는 모든 학생이 발표에 적극적으로 자원하여 완벽하게 발표합니다. 하지만 실제 몇몇 좋은 인문계 고등학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는 자는 학생, 떠드는 학생, 발표를 유창하게 하지 못하는 학생 등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의도적으로 배움이 느린 학생들을 지도하는 장면을 한군데 정도는 넣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발표를 머뭇거리는 학생을 지도하는 장면을 시연할 수 있습니다. 또 발표시키는 방식을 '지원자를 받는 방식' 외에 '주변 친구에게 발표할 친구를 추천해달라는 방식', '순회 지도를 통해 선생님께서 독창적인 풀이를 발견하여 발표를 부탁하는 방식' 등으로 다양화할 수 있습니다. 발표방식을 다양하게 진행해보시는 것은 단조로운 수업실연을 좀 더 풍부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업 실연 자체에 배움이 늦는 학생들을 지도하라는 조건이 없었기에 반드시 실연해야 하는 조건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 블로그 포스팅([https://blog.naver.com/crazy\\_math/223286820347](https://blog.naver.com/crazy_math/223286820347))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한편, 선생님의 수업은 수업 시간부터 애초에 학생들이 모둠 형태로 앉아서 수업을 듣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학생들을 모둠으로 앉혀놓고 교사가 강의식 수업을 한다는 것은 무척 도전적입니다. 아마 선생님의 학창 시절 속에서도 모둠활동을 진행하던 교실이 어땠는지 떠올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학생들은 주변 친구들과 장난치고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에 교사가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부분에 대한 실연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가령, '7모둠 끝에 앉은 철수 선생님의 판서가 잘 보이나요?', '옆 친구들과 떠들지 말고 의자를 칠판 쪽으로 돌려 앉아 봅시다.'와 같이 교사가 끊임없이 학생들의 주목을 이끌고자 하는 노력을 추가해보시길 바랍니다.